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1500
----------	------

제출년월일 : 2023년 12월 22일
제출자 : 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문

가. 대도시권 지상철도의 지하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마련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지하가 아닌 지상철도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고,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음

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정부 등에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도록 건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등

4. 이송처

가. 국회,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 통합개발을 위한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철도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근간이고 도시의 공간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서울 주변 대도시권의 경우 일일 평균 약 2천 5백만명이 철도를 이용하고 있어 대다수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한편 편리함도 제공하고 있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2·3·4·7호선과 경원선·경의선·경인선·경부선·경춘선·중앙선의 일부인 101.2km의 철도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변 지역주민은 소음, 분진 등의 환경 문제로 피해를 보고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로 인해 지역이 단절되어 지역사회의 연계성을 저하시키며, 지상철도 주변 지역은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도시 슬럼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상에 설치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을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향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불분명해 지역주민의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도시는 계속 노후화되어가고 있으며 한정된 도시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대도시권 철도 지하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를 제도화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및 서울시의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철도 지하화, 역사 부지 및 주변 지역 개발을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를 포함한 사업대상 범위, 사업시행자에 지방공사 추가, 사업절차, 건폐율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 부여 기준, 예산확보방안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마련하고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하나, 서울시는 사업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도 지하화 관련 기금 조성·운영과 함께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2023. 1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